



#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바다사자가 마늘요리해

EBS 독서 연계 대비

수특 상편

2024

EBS 독서 연계 대비 원조 맛집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좋은 연계체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

2024

## 머리말

2024학년도 이배이 시리즈입니다. 5년째 출판을 하며 항상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 “과연 비문학에서 EBS 연계의 효용이 어느 정도인가”

매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고찰해 왔고, 수능의 경향성과 연계율에 맞춰 매년 교재의 형태를 발전시키며 진화했습니다. 작품 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학과는 다르게, 비문학은 소재가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EBS 연계의 효용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문학의 경우, 매우 다양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소재를 공부하기에는 한정된 수험생활의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올 것 같은 지문만 공부하기에는 적종의 문제가 있으며, 모든 지문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배이’ 시리즈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여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EBS 비문학의 연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재로, 효율적인 수능 공부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재 사용법

상술한 바와 같이 ‘이배이’시리즈는 효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율이라는 것은 ‘나올 지문만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능에 무엇이 나올지 정확하게 적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문학의 특성상 간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어 공부할 지문’에 중요도를 체크하였습니다. ‘나올 만한 것’이 아니라, ‘나온다면 귀찮아질 소재’입니다. 지문별로 연계될 수 있는 소재까지 고려하여 모든 지문과 모든 소재를 준비하는 것은 연계 적중에 의한 효용보다 그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별로 힘을 주어 공부의 정도에 차등을 두어야 하며, 개개인이 ‘약한 분야’를 익히기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한 파트의 지문은 달달 외우셔도 좋고 3번 넘게 읽으셔도 됩니다. 이에 반해 강한 파트의 지문은 아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도’라는 것이 비문학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지식의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 상편 / 페이지는 EBS 본교재 기준

번호	페이지	제목
2024 수특개념1	9	실학의 등장으로 인한 조선 시대 자연관의 변화
2024 수특개념2가	11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기능주의의 관점과 그 의의
2024 수특개념2나	11	설의 중국어 방 논증과 그 의의
2024 수특개념3	14	깊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고전 읽기의 필요성
2024 수특개념4	17	화학 전지의 양극과 음극을 결정하는 이온화 경향
2024 수특개념5	21	독과점을 판단하는 시장 집중도 지표
2024 수특개념6	25	스피노자의 사상
2024 수특개념7	28	대상에 따라 달랐던 왕실의 잔치, 진연
2024 수특개념8	31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한 데리다의 입장
2024 수특개념9	36	빈곤을 판단하는 방법과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2024 수특개념10	39	세계 시민주의의 내용과 그 한계
2024 수특개념11	42	소리 세기, 소리 세기 수준, 시끄러운 정도의 개념상의 차이
2024 수특개념12	46	능동적인 독서를 위한 방법과 태도
2024 수특개념13	48	동소체의 개념과 특성 및 사례
2024 수특인예1	54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고찰
2024 수특인예2	58	미술에 대한 그린버그의 관점과 그 영향
2024 수특인예3	63	인간의 욕망에 대해 분석한 라캉의 이론
2024 수특인예4	67	이미지와 지각에 대한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입장
2024 수특인예5	71	캠벨의 원질 신화에 나타난 서사 구조와 그 의미
2024 수특인예6	76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서양 사상가들의 논의
2024 수특인예7	81	르네상스 음악의 특징
2024 수특인예8	85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과 진리의 상대성
2024 수특인예9	90	퍼스가 제시한 가추법의 추론 방식과 특징
2024 수특인예10	94	사회 계약론의 개념과 학자별 견해
2024 수특인예11	98	인간의 행위에 대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모델
2024 수특인예12	102	요제프 보이스의 예술 개념과 의의
2024 수특인예13	106	회화와 음악에서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24 수특사문1	111	위협 소구와 관련된 이론 및 유의점
2024 수특사문2	116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과 의미
2024 수특사문3	120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가설과 경제 정책 방향
2024 수특사문4	124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 대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
2024 수특사문5	128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신박물관학자들의 입장
2024 수특사문6	132	국제 투자 대조표와 대외 지급 능력에 대한 이해
2024 수특사문7	137	선거 방송 보도의 종류와 그 특징
2024 수특사문8	142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
2024 수특사문9	147	채권의 발행과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
2024 수특사문10	152	신속하고 경제적인 소송을 위한 조선 시대 소송 제도
2024 수특사문11	157	헌법 재판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다양한 견해
2024 수특사문12	161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한 공공 선택론
2024 수특사문13	165	문턱값, 재화의 도달 거리와 상업 입지

목차 / 하편 / 페이지는 EBS 본교재 기준

번호	페이지	제목
2024 수특과기1	172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개념과 특징
2024 수특과기2	176	핵 재처리 기술의 종류와 특징
2024 수특과기3	179	창의성과 관련된 뇌의 작용
2024 수특과기4	182	화학 반응과 이에 관여하여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촉매
2024 수특과기5	186	OSI 참조 모델의 계층과 기능
2024 수특과기6	191	케플러가 지구의 타원 궤도 운동을 밝혀낸 과정과 그 발견의 의의
2024 수특과기7	195	다양한 저울의 측정 원리
2024 수특과기8	199	데이터 전처리에서 이상치와 결측치의 처리
2024 수특과기9	203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진화 음악을 만드는 과정
2024 수특과기10	207	압전 효과와 이를 이용한 진동 센서
2024 수특과기11	211	퓨가시티의 개념과 퓨가시티와 기체상의 압력과의 관계
2024 수특과기12	214	전계 방출 현상의 원리와 발생 조건
2024 수특과기13	218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과정
2024 수특통합1가	223	동물 중에서 발견되는 종 특이적 행동들에 대한 진화론적 규명
2024 수특통합1나	223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에 대한 진화적 관점에 따른 견해 및 사회적 학습에 의한 감정 유발 단서와 전시 행동
2024 수특통합2가	229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시간 구분 방법
2024 수특통합2나	229	조선의 시간 통제
2024 수특통합3	233	그림자 금융의 운영 원리
2024 수특통합4가	238	음악의 의미 표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해튼의 음악 해석 이론
2024 수특통합4나	238	음악 기호학에 대한 부정적 입장
2024 수특통합5가	242	한비자의 통치론
2024 수특통합5나	242	마키아벨리의 통치론
2024 수특통합6가	247	물질의 입자성과 파동성의 이중성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성 원리의 개념
2024 수특통합6나	247	파장을 통한 측정에서 불확정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2024 수특통합7가	251	보편자와 특수자에 대한 실재론과 유명론의 관점
2024 수특통합7나	251	공손룡의 견백석이 논증을 통한 그의 현실 인식
2024 수특통합8가	255	강수의 원리
2024 수특통합8나	255	인공 강우의 원리와 활용
2024 수특통합9가	259	원격 작용설에서 맥스웰 방정식까지 19세기 전자기학 연구의 전개 과정
2024 수특통합9나	259	헤르츠의 전자기파 발견부터 원거리 전파 통신 실현까지의 과정
2024 수특통합10가	265	증강 현실의 특징과 구조
2024 수특통합10나	265	현존감의 개념과 유형
2024 수특통합11가	270	조세 제도를 고안할 때 고려되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개념
2024 수특통합11나	270	조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의 특성에 따른 조세 부담의 양상
2024 수특통합12가	276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과학적 지식의 상대성
2024 수특통합12나	276	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로티와 퍼트넘의 논쟁
2024 수특모고1-1	282	효과적인 독서 전략과 의미 구성 능력의 향상 방안
2024 수특모고1-2	284	삼각 측량 논증의 기본 전제와 이를 통한 사고 형성
2024 수특모고1-3	287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물권 행위에 대한 두 관점
2024 수특모고1-4	290	지구상의 유기체에 나타나는 일주기 리듬의 작동 원리
2024 수특모고2-1	294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별해 전략적으로 독서하는 태도
2024 수특모고2-2	297	태풍의 바람 방향과 관련 있는 과학적 원리
2024 수특모고2-3	301	주체성을 중시하며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왕수인의 양명학
2024 수특모고2-4	306	환율 결정 모형에 대한 이해와 응용

2024 이배이  
수특판

# 교과서

교과서 | 인문예술 | 사회문화 | 과학기술 | 개념통합 | 실전모의

2024 개념#1 수특 p9	<b>실학의 등장으로 인한 조선 시대 자연관의 변화</b>
<p>이 글은 조선 시대 자연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자학과 실학에서의 자연 인식을 설명하고 있다. 주자학에서의 자연의 의미를 격물치지론을 바탕으로 설명한 후 조선 후기 실학의 등장으로 인해 자연이 도리나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p>	

<b>연계 기출</b>	
평가원	1994.11, 2010.09, 2010.11, 2013.09, 2018.06, 2021.11
LEET	2013(13~15)

주자학에서는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인 ‘도리(道理)’와 자연 법칙인 ‘물리(物理)’는 다르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군신간의 의리를 비롯한 삼강오륜 등 인간사회의 운영원리를 ‘자연’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주자학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조선으로 이어졌다.

주자학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는 학문과 수양의 근거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물(物)’은 대상적 존재를 의미한다. 그런데 주자학에서는 ‘물’을 행위적 사실을 뜻하는 ‘사(事)’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물리(物理)와 사리(事理)가 같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연계의 원리와 법칙을 뜻하는 물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자학에서 물리는 사리로서 인간 사회의 원리와 자연 세계의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치지(致知)의 ‘지’는 자연과학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규범 등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자연 법칙과 도덕 규범을 하나로 보고 자연의 물리와 인간의 도리를 통일적으로 파악했던 것이며, 이에 따르면 인간 세상의 상하관계적 신분 질서는 천지 상하의 자연 질서의 또 다른 모습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의 원리와 자연 법칙을 통일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객관적 대상물로서의 자연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제한적이었던 주자학적 자연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도리로부터 물리의 해방, 인간학으로부터 자연학의 자립화

가 선행되어야만 했다. 조선 후기 자연 인식의 변화, 이른바 실학적 자연인식의 등장은 바로 이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정제두는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와 자연법칙을 각각 생이지지(生而知之: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 앎.)라는 선천적 지식과 학이지지(學而知之: 배워서 앎.)라는 후천적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이익은 자연을 인간사회와 관계 없이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약용은 우주 만물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를 분리하여 인간사회와 관련된 모든 기호와 상징은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자연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학과 자연학을 구분하였다. 즉 정약용에게 물리는 자연물의 속성, 기술의 원리, 자연 법칙 등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전통적 자연관의 구도를 해체하여 도리와 물리를 분리하고 자연학의 개별성을 확립함으로써 자연탐구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도리와 물리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 본문 속 배경지식

2024 인예1	주자학의 태도	☆
<p>주자학에서는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인 '도리(道理)'와 자연 법칙인 '물리(物理)'는 다르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군신간의 의리를 비롯한 삼강오륜 등 인간사회의 운영원리를 '자연'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주자학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조선으로 이어졌다.</p>		
<p><b>도리:</b>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 <b>물리:</b> 자연 법칙</p>		

2024 수특 p. 9

2024 인예2	조선의 주자학	☆☆
<p>정제두는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와 자연법칙을 각각 생이지지(生而知之: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 앎.)라는 선천적 지식과 학이지지(學而知之: 배워서 앎.)라는 후천적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이익은 자연을 인간사회와 관계없이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약용은 우주 만물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를 분리하여 인간사회와 관련된 모든 기호와 상징은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자연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학과 자연학을 구분하였다.</p>		
<p><b>정제두:</b>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의 구분 <b>이익:</b> 자연은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운행함 <b>정약용:</b> 인간세계와 자연세계의 분리</p>		

2024 수특 p. 9

## 기출 속 배경지식

<p><b>동양 철학자의 길에 대한 생각</b></p> <p>유학자들에게 길은 백성을 통치하는 독, 즉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행정 통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동양식, 전제 왕권 사회에서의 길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가에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방(關防)과 높은 문루를 세워야 하고, 도로 표지를 만들며 정자목(亭子木)도 심어야 했다. 그러나 도가(道家)들의 생각으로는 길이란 형식적이고 웅장할 필요가 없다. 좋은 길이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며 자연 법칙에 따라 굴곡이 있는 길이어야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적절히 조화된 것이 동양 사회의 길이다.</p>
--

1994 수능

<p><b>동양의 '천(天)' 개념</b></p> <p>동양에서 '천(天)'은 그 함의가 넓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었고,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 데도 그것의 이치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었다. 그래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自然天)'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p>
--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 '천(天)' 개념의 변화

천명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재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이어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졌고,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어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 최한기의 지행론

천명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재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이어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졌고,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어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2010학년도 수능

### 성리학의 지(知)와 행(行)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知)와 행(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병진(知行並進)'이었다.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先後)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相資互進)'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하였다.

2010학년도 수능

### '예'의 기능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는 주나라 봉건제가 무너지고 제후국들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일삼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자는 예(禮)를 제안하였다. 예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그 사회에 맞게 규범화한 것으로 단순히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거나 행동을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억압 장치는 아니었다. 예는 개인의 윤리 규범이면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였으며,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 공자의 이상적인 정치와 인간상

공자는 예에 기반을 둔 정치는 정명(正名)에서 시작한다고 하며, 정명을 실현할 주체로서 군자를 제시하였다. 정명이란 '이름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주는 군주다운 덕성을 갖추고 그에 맞는 예를 실천해야 하며, 군주뿐만 아니라 신하, 부모 자식도 그러해야 한다. 만일 군주가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과 형벌에 기대어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기 위해 법을 지킬 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공자는 보았다.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성인(聖人)이다. 공자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다. 성인은 도덕적 수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를 가리키는데 언제 어디서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군자는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의 지속적인 도덕적 수양을 통해 혼란스러운 당시의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로 이끌고자 하였다.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 유학의 수기치인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 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 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 북학파와 청의 현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1학년도 수능

### 이익의 서학 수용

18세기의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기존의 학성을 정당화하거나 배재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2021학년도 수능

2024	<b>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기능주의의 관점과 그 의의</b>
개념 #2 (가) 수특 p11	
<p>이 글은 인공 지능의 철학적 기반이 된 기능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능주의는 정신 상태를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는 동일론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특정한 정신은 특정한 입력이 들어올 때 기능하는 것이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특정한 정신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게 하면 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이다. 이러한 기능주의는 인공 지능 연구를 촉발시키고 인지 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p>	

연계 기출	
평가원	2014.11.B, 2022.예시
LEET	2019(19~21)

신경 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정신 상태를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일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은 동일론을 부정하고 기능주의를 등장하게 했다.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능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를 상상해 보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외계인이 있다고 하자. 외계인의 몸은 신경 세포 대신에 수많은 파이프가 관통하고 있으며, 전달되는 물의 압력에 의해 어떤 밸브는 열리고 어떤 밸브는 닫히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낀다. 이번에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발명되었다고 상상해 보자. 그 로봇은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실리콘 칩과 전선이 작동하여 고통을 느낀다. 외계인이나 로봇은 우리와 정신 상태는 똑같지만 고통을 구현하는 물질은 인간의 뇌가 아니다. 이를 통해 정신 상태는 뇌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동일론이 옳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기능주의는 동일론의 주장과 달리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앞의 상상에서 나오는 외계인, 로봇 모두 똑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기능주의에서 정신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된다. 가령 고통은 누군가가 꼬집으면(입력) '아야!'라는 소리를 내며 몸을 움츠리는 것(출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

에게는 뇌의 신경 세포, 로봇에게는 실리콘 칩이 될 수 있다.

기능주의는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넘어 인공 지능 연구를 촉발시키고 인지 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까지 했다. 인공 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과 뇌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구조나 재료는 다르더라도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 본문 속 배경지식

2024 인예3	<b>동일론과 기능주의</b>	☆☆☆
<p>신경 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정신 상태를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일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은 동일론을 부정하고 기능주의를 등장하게 했다.</p>		
<p><b>동일론:</b> 정신 상태가 뇌와 동일함 <b>기능주의:</b> 정신 상태가 뇌와 동일하지 않음</p>		

2024 수특 p. 11

2024 인예4	<b>인공지능의 목표</b>	☆☆☆
<p>기능주의는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넘어 인공 지능 연구를 촉발시키고 인지 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까지 했다. 인공 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과 뇌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구조나 재료는 다르더라도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p>		
<p>인공지능의 목표는 <b>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b></p>		

2024 수특 p. 11

## 기출 속 배경지식

<b>심신이원론</b>
<p>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p>

2014학년도 수능 B형

<b>심신일원론</b>
<p>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p>

2014학년도 수능 B형

## 동일론과 이원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주어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2022학년도 예시문항

## 데카르트의 이원론 반박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범한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2022학년도 예시문항